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귀태. 안셀모 916-847-820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 제1독서 | 이사야서 63:16-17, 19:64:2-7 | 제2독서 | 코린도1서 1:3-9 | 복음 | 마르코 13:33-37

◎말씀 < “깨어 있어라” >

오늘은 교회 전례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대림 제1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 그리고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 마지막으로 왕으로서 우리에게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큰 틀이 공동체에 제시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원대한 계획을 전례력이라는 1년 단위 시간으로 압축해 놓았습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며 교회 공동체는 떠들썩한 세상과는 대조적으로 숨죽이며 한 아기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의 묵시록’이라는 마르코 복음 13장의 종결부입니다. 마르코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행적을 전합니다. 11장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가 성전을 비판하고, 12장에서는 예수가 유대의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이제 13장에서 성전 파괴라는 예언과 함께 종말에 대해 경고합니다. 여기서 11장과 13장은 성전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예수의 모습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14장부터는 예수의 수난에 대한 보도입니다. 즉 예수의 죽음은 그가 벌인 운동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구성된 헛된 권위와 갈등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마르코 복음 13장의 대미를 장식하는 오늘 복음은 종말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을 “깨어 있어라”는 요청으로 마무리합니다. 종말의 시간은 하느님 외

에는 그 누구도, 인간 뿐만 아니라 천사들과 하느님의 아들도 모르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은 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 온전히 속한 시간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느님이시니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 또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중 제일 눈에 띄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깨어 있어라”입니다. 이 “깨어 있음”은 육신적 의미에서의 잠들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 하느님이 시작하신 구제사의 완성에 대해 온전히 집중하여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반대로 “잠들어 있음”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마치 하느님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미 성전에 대한 비판을 통해, 하느님의 백성을 잠들어 있게 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보낸 예수의 경고가 여기에서는 직접 모든 백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아기 예수를 숨죽여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는 이렇듯 종말에 대해 “깨어 있어라”는 예수의 요청으로 그 첫 주간을 맞이합니다. 한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며 세상의 종말에 대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마치 100미터 달리기 경주를 하는 선수가 호흡을 고르며 결승점을 주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뛰어야 할 시간은 아니지만 그 목적지를 주시하며 자신을 준비하는 “깨어 있음”이, 대림을 맞이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가장 올바른 영적 태도라고 오늘 복음은 간곡히 가르칩니다.

일 자	전례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2월 1일(화)	대림 제1주간 화요일		교무금 주일헌금	\$ 1,830.00 \$ 610.00
12월 2일(수)	대림 제1주간 수요일		미사예물 성소후원	\$ 647.00 \$ 82.00
12월 3일(목)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 기념일		사회복지 성물방	\$ 123.00 \$ 50.00
12월 4일(금)	대림 제1주간 금요일		기타수입 ACA Rebates	\$ 0.00 \$ 0.00
12월 5일(토)	대림 제1주간 토요일		합 계	\$ 3,342.00
12월 6일(일)	대림 제2주일	오전 10시	미사참례자	학생: 0명 성인: 58명
교무금 봉헌자	김병길(11-12월) 조영진(6-12월) 신희재(9-12월) 이원건(3-9월) 류승교(8월) 김채홍(10월) 윤영자. 김계숙(12월)			

◎신앙생활(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대송 (주일의 의무를 대신하는 것)

대부분의 성당에서 시간은 다르지만 매일 미사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4시전까지의 미사를 ‘평일 미사’ 라고 하고 토요일 오후 4시 이후부터 일요일까지 드리는 미사를 ‘주일미사’ 라고 합니다(『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74조 1항).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우리나라에서 의무 축일은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과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그리고 12월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 입니다.)에 봉헌하는 미사는 전날 오후4시부터 거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다인의 관습대로 토요일 해가 지면서부터 주일 해가 지기까지 주일의 축제를 지낸 전통을 따른 것으로, 오후 4시부터 해가 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토요일 저녁과 의무 축일 전날 저녁에 드리는 미사를 특전 미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모두 같은 주일미사입니다. (토요일 4시 이전에 드리는 어린이 미사는 그 특수성에 따라 주일 미사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주일 미사 중에는 ‘교중 미사’ 가 있습니다. 이 미사는 본당 주임 사제가 자신에게 맡겨진 본당의 모든 신자를 위해 의무적으로 드리는 미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중미사에서는 개별 지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주일과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여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교회법』 1247조). ‘주일’ 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날로서 ‘주님의 날’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는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예를 들어 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 이유로 주일미사에 일시적이건 지속적이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자들을 위하여 주일의 의무를 **다음의 세 가지 중 하나를 실천**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74조 4항). 이를 ‘대송’ 이라고 합니다. 이 대송을 바치신 분들은 따로 고해성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첫째,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 둘째, 그 주일 미사의 독서와 복음을 읽습니다.
 - 셋째, 선행, 곧 희생과 봉사를 실천합니다.
- 그리고 교회는 주일 미사에 참여하지 못한 신자들에게는 평일 미사에 참여하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교회는 저마다 어려움을 안고 찾아오는 모든 이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복음의 기쁨』, 47항)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옥.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김초지.마리아/이규청.제노비아/엄모니카
배미성.오틀리아/박모란.글라라/고공자.벨라뎃타
신용경.그레고리오/이상일.마리아/곽화근.요한
신상철.사무엘
- ◎기도 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유성녀.데레사, 손정순.데레사 이화숙.요안나, 정문자 영혼	이나숙.데레사	생	장영란.젼마 영육건강	구비아
			생	박서연.마리아 영육건강	류가브리엘라
연	유재표.베드로, 최두능.안나 영혼	류가브리엘라	생	이호순.수산나 건강회복	류가브리엘라
연	모든 연령을 위하여	연령회	생	곽화근.요한 건강회복	곽유경.데레사
생	장영란.젼마 영육건강	임정남.실비아	생	강우림.로사, 강제이, 강조던 강뢰이언.프란체스코, 강로건(백일) 영육건강	류재순.마리안나
생	홍현주.보나, 홍캘리 홍정우(첫돌) 영육건강	류재순.마리안나			

간장종지

◎대림◎
 이제는 깨어 있을 시간, 두 눈으로 당신을 다시 보며
 이제는 유심히 들을 시간, 나무 잎 적시는 천상의 빗소리
 아, 이제는 기다릴 시간, 당신의 발소리를 겸손하게
 돌이 하나되고 모두가 되는, 이 찬란한 예정의 시간을
 마종기.노렌조 시인/의사

(광고)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좋은사람들, 좋은아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p> <p>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 cell</p>	<p>에어컨 수리</p> <p>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p> <p>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p> <p>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최병엽공인회계사</p> <p>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 의사</p> <p>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p>동부뉴욕 4박5일 관광 엘로스톤 유럽 관광전문</p> <p>게스관광</p> <p>(480)244-0033 카카오톡:guesstour www.guesstour.com</p>	<p>Suzie Hair World</p> <p>2901 Mather Field Rd, #A, Rancho Cordova CA 95670 윤수산나 (916)368-8000</p>
<p>Print N Signs</p> <p>Signs/Banners/T-Shirt Wrap/Windows Tint Soheil Samiee (916)844-0280/914-3794 PrintsNsigns16@gmail.com 9336 La Riviera Dr. #B</p>	<p>♡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p> <p>성당에 제출할 CHECK 발행하실 때</p> <p>Payee to: St.J.H.C</p>		

◎공동체 소식(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오늘은 대림 제1주일입니다.

전례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대림1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을 실천하며,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립시다.

1.주일 야외미사

최근 COVID-19 재확산에 따른 교구방역지침에 따라 당분간 10시 교중미사가 야외미사로 집전됩니다. 미사후 자발적으로 정리정돈에 참여해 주시는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평일 온라인미사 (문의:각구역장)

일시:평일 오후6시 (동영상)
 평일 오후7시30분 (구역별 Zoom 미사)
 금요일과 일요일은 온라인미사 없습니다.
 집전:김원현.베드로 본당주임 신부님
 온라인 미사참례를 통하여 영적갈증을 해소하고 신부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3.꾸르실리스따 온라인교육 참가신청 (29일까지)

기간:12월3일~5일, 저녁7시~10시
 지도신부님:김현국요한사도(트라이벨리신부)
 장소:Zoom을 이용한 OnLine Program
 주관:북미주 서중부 꾸르실료 사무국
 참가비:무료(빨랑카) 문의:이상인.시메온 간사
 본당 꾸르실리스따의 많은 관심과 참가 바랍니다.

4.주보광고(2021년) 신청하세요

금액:\$150/1년 (외부:\$200/1년) 신청:사무실

5.매일미사(2021년) 연간구독 신청하세요

금액:\$50/1년 신청:사무실

6.정혜도서관 개관 및 대출도서 반납 안내

개관일시:12월13일(일)교중미사후
 도서반납:정혜도서관 또는 사무실

◆미사시간 변경안내

주일미사;일요일 오전10시(교중미사)
 평일미사;당분간 없습니다.
 미사참례자는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모임 및 회합.행사 중지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장합니다.

◆교무금과 주일헌금 봉헌

교무금과 주일헌금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교회 유지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신자들의 의무사항입니다. 미사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Check 발행시: ST. J.H.C.)

◆미사 참례시 안내사항

- 미사 전후에 성당을 소독합니다. (미사 장소와 친교실, 화장실 등)
- 미사 참례자는 성당 입구에서 손 세정제를 사용한 뒤 성전에 들어갑니다.
- 미사 참례자는 다른 사람과의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합니다. 다만, 가족은 예외입니다.
-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체를 모실 때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 미사중 신자가 함께하는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응답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하고, 성가는 필요에 따라 독창이나 오르간 반주로 대신합니다.
- 성체분배 전, 주례 사제는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만 외치고 성체분배 시에는 사제와 성체분배자 모두 침묵 중에 성체를 분배하고, 양형 영성체와 입으로 하는 영성체는 금지합니다.
- 미사 중(평화의 인사등) 뿐만 아니라, 미사가 끝난 후에도 악수 등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화답송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주소서 당신얼굴을비추소서 저희가구원 되리이다

전례봉사	대림제1주일(11월29일)	대림제2주일(12월6일)	대림제3주일(12월13일)	대림제4주일(12월20일)
복사	김규철.레오	송돈희.요셉	김규철.레오	최진호.다니엘
헌금위원	레지오 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